

내가 좋아하는 음악

나 운 영

내가 추천하고 싶은 작곡가를 한 사람만 고르라면 나는 서슴지 않고 스트라빈스키라고 말한다. 그는 <불새>, <페트루시카>, <봄의 제전>, <병사의 이야기>, <화투놀이> 등 수 많은 발레음악을 작곡하였는데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역시 발레음악으로 작곡된 <결혼>이란 작품이다.

이제 내가 이 곡을 좋아하게 된 동기를 말한다면—일제 말엽인 1944년 나는 우연히 『눈과 귀에 의한 콜롬비아 음악사 제5부(현대음악편)』의 레코드와 해설책을 구했는데 이 중에는 후기 낭만파 음악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, 인상파 음악의 드뷔시, 무조無調음악의 쇤베르크, 다조多調음악의 미요, 신고전주의 음악의 힌데미트, 악기법 상에 있어서의 극단주의 음악의 바레스, 미분음 음악의 하바 등과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<결혼>의 한 부분이 들어 있었다.

나는 이 곡을 들었을 때 단번에 매혹되고 말았다. 러시아 민요조의 멜로디를 현대화한 이 작품에서 나는 하나의 계시를 받았다. 즉 나도 우리나라의 민요, 창극, 농악, 등속을 현대화하여 한국적인 현대음악을 창조해야겠다는—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. 그러나 S.P. 10인치 한 면에 들어 있는 이것만을 들어서는 이 곡의 진가를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곡의 전곡을 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.

그러던 중 8·15 해방 후 찾아간 곳이 지금도 유명한 명곡감상실 「르네상스」였다. 나는 여기서 바르토크의 <현악 4중주곡 제1번>, 베르그의 <서정 소곡>과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<결혼> 전곡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었다. 그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. 세월이 흘러 6·25사변으로 말미암아 부산으로 피난을 간 뒤에도 이 곡이 듣고 싶어 한번은 대구까지 가서 역시 「르네상스」에서 이 곡을 미칠 듯이 듣고 돌아온 일이 있다. 다시 세월이 흐르고 흘러 서울 수복 후 나는 백조사의 주인 문영식 옹에게 이 곡의 레코드를 구해 달라고 애원했었다. 그러던 중 약 10년이 지난 뒤에 기적적으로 이 레코드를 구하게 되었으니 나의 소원을 풀어 주신 분은 물론 문옹이었던 것이다.

내가 아끼는 이 레코드는 물론 S.P.이지만 L.P.로는 K.Y.(주:기독교방송국)와 음악감상실 「아폴로」에만 있을 따름이니 매우 귀한 판임엔 틀림없다. 나는 K.Y.에서 녹음해 온 테이프를 가끔 듣기도 하고, 기회만 있으면 「아폴로」에 가서 이 곡의 스코어를 더듬어 가며 열심히 듣고 혼자서 감탄하며 돌아오곤 한다. 나는 남보다 비교적 희귀한 책과 레코드를 부지런히 사 모으고 있는 편이지만 이 <결혼>의 레코드와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옛 생각을 더듬게 된다.

< 1967. 9. 女像 >